

## 율법과 인간 (로마서 7:1-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24-25)

로마서 7장 1-25 절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인간 실존의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바울은 혼인법의 비유를 통해 율법의 제한적 효력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밝힌다. 그러나 죄는 본래 선한 계명인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 안에 욕망과 범법을 일으키며 결국 죽음을 산출한다. 바울은 1 인칭 서술을 통해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순을 묘사하며, 이러한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4 절)는 사실을 바울은 1 하반절의 원칙을 통하여 증명한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오직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법적 구속력을 미친다. 바울은 혼인법(2-3 절)으로부터 본보기를 들어서 이것을 선명하게 그린 다음에(2-3 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결론을 끌어낸다.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세례와 성만찬에서 기독교자들에게 현재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죽음으로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서 율법의 효력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삶을 규정하는 한(육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율법은 계명에 복종하게 하는 대신에 바로 정욕과 범죄에로 오도하며 정욕과 범죄는 죄와 죽음에로 인도한다(7-11 절). 율법이 그 영향력을 상실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셔서 속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율법과 죄의 관계는 바울이 이미 3:20; 5:13; 7:5 에서 간략하게 서술한 바 있으나 7-13 절에서 상세하게 기술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다(10,12 절). 그러나 율법이 인간에게 갖는 경계선은 인간에게 모순과 범법을 촉발시킨다. 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숨은 적대감으로서 알려지지 아니한 채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계명을 통하여 깨어나서 작용을 하게 되며(8-9 절) 율법과 그 작용을 왜곡시켜서 죽음을 가져오는 연장으로 둔갑시킨다(10-11 절).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죄의 치명적 성격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다(13 절). 바울은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어서 선명하게 그린다(7-8 절). 이렇게 함에 있어서 바울은 일인칭 단수 어법인 나-형식으로써 특별히 자기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역사를 모형으로 하여 각 사람이 율법과 마주치는 것을 서술한다. ‘율법 아래 있는 있는 사람’이 율법과 이렇게 마주침은 주관적으로 전적으로 달리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빌 3:3-9 에서 자기 자신의 실례를 들어서 보여준다.

7-13 절이 율법과 결부된 인간의 역사를 묘사했다면 14-20 절과 21-24 절은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을 서술한다. 14 절은 근본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실제적 의도를 알고 있다. 율법은 신령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인간, 곧 화자인 ‘나’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육적이어서 죄에 팔렸기 때문이다. 15-17 절과

18-20 절은 하나의 병행적 사상 구조에서 이 분열의 결과를 묘사한다. 인간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하고자 하며 선과 구원과 생명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고(즉 육신) 따라서 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아는 오직 파멸과 죽음을 일으키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은 단지 개개의 과오에서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경건한 사람이 걸모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역시 그 사람은 그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그의 자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에게 왜곡시키고 그를 죄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때문이다

21-23 절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분열, 즉 그가 그 아래 서 있는 불가피한 율법(21 절)을 다시 한 번 개진한다. 속 사람, 즉 그가 본래적으로 그러해야 할 그 인간과 그의 마음, 즉 그의 속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찬동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지체 즉 구체적으로 영위되는 삶의 실존에서는, 죄가 지배하고 죄가 율법을 악에 악용한다. 그에게는 죽음에 떨어진 이 현존(24 절) 으로부터 구출을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따름이다. 25 상반절은 한 쪽에 이 구조 절규와 다른 한 쪽에 구원에 대한 간략한 감사를 대칭시킨다. 이 감사는 8장에서 근거가 제시된다. 25 하반절은 다시 한 번 21-23 절을 요약한다. 그렇지만 역점은 약간 다른 곳에 놓는다(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7-25 절의 전체 단락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상황을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하며 서술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도 여전히 죄인인 기독교자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관하여 말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런 주석가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옳은 점은 기독교자도 역시 그리스도와 맺은 결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시금 죄의 지배 아래 빠지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